

## 1) 증산교계(순천교)

본교는 증산교계 교단의 하나로 승주읍에서 1892년에 출생한 장기준에 의해서 1919년 창교되었다. 장기준은 증산의 생존 제자인 김경학에게 증산 교리와 ‘태을주(太乙呪)’에 의한 수련 공부를 지도받았다. 그뒤 그는 김형열(金亨烈)의 미륵불교에 입교하여 증산을 신봉한 바 있다. 더구나 그가 미륵불교인으로 활동할 때, 1961년 11월에 괴질이 발생하여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증산이 예언한 말에 의해 김형열이 의세제민(醫世濟民)할 사자(使者)로 360명을 선발하여 각지로 파견하였는데 여기에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그 일이 허사로 끝나자 그는 사람의 말이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증산 교리에 능통하였다고 판단한 뒤 증산의 “처전”의 서문을 천 번 읽게 되면 도통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 실천, 국사봉 아래에서 처전”의 서문을 천 번 읽은 후 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도란 증산의 저술인 현무경(玄武經)』(법문)의 내용에 있다고 하였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고향에 ‘순천교(順天教)’라는 교단을 창립하고 교인들을 모았다. 순천교라는 교단의 이름은 자신이 순천 출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증산의 생존 제자 가운데 문공신(文公信)이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가운데 “학즉증산지학(學則龜山之學) 도즉순천지도(道則順天之道)”라 한 말에서 비롯한 것이라 한다. 그가 순천교를 창립하자 순천지역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다. 이때 그를 추종하던 신도 가운데에는 김중식(金仲植 : 낙안 출신), 최래경(崔來景 : 여수 출신), 유출래(柳出來 : 고흥 출신) 등 3대 고제(高弟)가 배출되었다.

장기준은 자신의 3대 고제 가운데 유출래에게 현무경』에 대한 자신의 설을 전수하고 신도들의 지도를 책임지게 하였다. 그뒤 그가 교단을 창립하여 포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922년 사망하고 말았다. 유출래가 교통을 계승하여 2세 교주가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몇몇 신도들이 교단을 이탈하여 따로 교파를 형성하고 활동을 하였으나 대부분 소멸되었다. 2세 교주가 된 유출래는 1939년 교단의 본부를 전북 김제군 봉남면 남양리 개전지마을로 이전하였다. 흔히 이 교를 ‘증산교법문파(龜山教法文派)’라 부른다. 이는 증산 교리를 중시하되 특히 현무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태을주송을 위주로 하는 주송파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린다.

신앙 대상은 천·지·인 합일삼위신(合一三位神)이다. 이 삼위신은 증산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기본 교리는 증산의 저술인 현무경』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현무경』이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그리고 음양이기(陰陽理氣), 즉 건도(乾道)의 천지비괘(天地否卦)가 곤도(坤道)의 지천태괘(地天泰卦)로 변하는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존시대(地尊時代)에서 인존시대(人尊時代)로 변천하는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선, 불, 유의 순으로 교화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불, 선, 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현무경』의 출처와 발견의 유래를 살펴보면, 증산이 조화궤(造化櫃)를 만들어 약장(藥穢)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증산이 죽은 뒤 1911년 정읍에서 ‘보천교’를 창교하여 포교하고 있던 차경석(車京石)이 이 조화궤를 약장과 함께 가져다 보관하고 있었다. 증산이 생존할 때 자신의 제자 김경학에게는 ‘대학도수(大學度數)’를, 차경석에게는 ‘포정도수(布政度數)’를, 신경원(辛京元)에게는 ‘복록도수(福祿度數)’를 신경래(辛京來)에게는 ‘수명도수(壽命度數)’를, 문공신에게는 ‘오선위기도수(五仙圍基度數)’를 박공우(朴公又)에게는 ‘음양공사도수(陰陽公事度數)’를 각각 주었다. 그런데 김경학의 연원(淵源)을 갖는 장기준이 차경석이 보관하고 있던

조화계를 가져다 열고 보니 그 안에 《현무경》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장기준이 이를 복사하여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증산이 장기준에게 《현무경》을 전수한 것이 된다. 더구나 증산이 문공신에게 전수한 오선위기도수에 관한 오선위기도를 장기준이 김경학을 통하여 복사하였다. 이 역시 장기준이 문공신으로부터 증산의 도통을 전수받은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증산이 차경원의 집 벽에 붙여놓았던 두문동성수도(杜門洞星數圖)를 김경학을 통하여 복사하였는데 이것도 장기준에게 증산의 도통이 전수된 것이라 한다. 장기준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순천으로 가져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증산사상의 진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증산과 장기준의 관계는 직접적인 사제 관계는 아니다. 《역전(易傳)》 비지(備旨) 2장에 “승열어증산호(升熱於甌山號) 염하장설하(炎下張說下)”라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은 말은 함동계(參同契)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장기준이 증산의 도통을 계승한 것이라 본다.

교인들은 증산이 자신의 사상을 밝혀놓은 《현무경》의 진리를 장기준의 설에 입각하여 구득함과 동시에 증산의 심법을 받으려는 데에 수행 목적이 있다. 그것은 증산의 진리와 심법을 구득함으로써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는 따로 제단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본부에서 행하는 4대 치성이 있다. 6월 24일(화천일), 9월 19일(교조 장기준의 도각기념일), 정월 11일(교조 장기준의 탄생기념일), 3월 22일(장기준의 선화일)이다.

치성은 진(進)·청수(淸水)·분향(焚香)·진찬(進饌)·진주(進酒, 3배)·사배례(四拜禮)의 순서로 한다. 수련 공부는 시작할 때 ‘시천주’를 송독하고 《현무경》의 내용을 기록한 제사 축문을 읽으며, 그 다음 ‘금수대도술(禽獸大道術)·천지대팔문(天地大八文)·음호적호(吟乎的乎)·일월대어명(日月大御明)·인간대적선(人間大積善)·귀신세계(鬼神世界)’의 글을 외운다. 또한 일기법(日記法)이라 하여 아들에게는 자(子)·인(寅)·진(辰)의 물형부(物形符)를 사본으로 세 통 만들어 끝부분에 ‘시천주造化정(侍天主造化定)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라 써서 매일 송독, 심고(心告)한 뒤 소축(燒祝)을 한다.